

배우 김정영 “코로나 확산 공포...촬영장 걱정스런 상황”

‘십시일반’ 화백 전부인이자 살해범 반전 역할

“‘빛나’ 김혜준, 내 딸과 비슷...오나라, 귀여워”

“남편, 배우 김학선...‘비밀의 숲2’ 야비 변호사”

“처음에는 돈 때문에 화백을 죽인 것이라고 생각했다. 남편이 500억 자산가인데 돈에 대한 미련이 전혀 없었잖나. 하지만 결국 사랑이었다.”

배우 김정영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강남 한 카페에서 가진 MBC TV 수목극 ‘십시일반’ 중영 기념 인터뷰에서 “굉장히 잘 마무리된 드라마다. 끝나고 나니 시원섭섭하다”고 중영 소감을 밝혔다.

김정영은 극중 유인호(남문철 분) 화백의 전 부인이자 연극 연출가 ‘지실영’ 역으로 출연했다.

20년 전 화백의 불륜 후 이혼했지만 17년 전 다시 관계를 시작하고 되고, 암 투병 소식을 알게 된 후 함께 살며 화백을 돌봤다.

극 후반 화백 살해 진범으로 밝혀지면서 충격을 줬다.

차갑게 굴었던 유빛나(김혜준 분)의 목숨을 살렸다는 반전도 가슴 따뜻하게 다가왔다.

김정영은 ‘지실영’에 대해 “사실 좀 추운 감정이 들었다. 감정을 절제하고 드러내지 않았던 여인”이라며 “큰 죄를 짓고 벌을 받았지만 안쓰러운 느낌이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극 후반 유산 후 불륜을 저

지른 화백에게서 이혼 서류를 받는 장면에선 감정이 ‘훅’ 들어왔다.

“20년 전 이혼 서류를 받는 장면을 찍을 때 예상치 못했던 감정이 훅 들어왔다. 미워서 울 줄 알았는데 슬퍼서 울게 되는, 묘한 마음이 생겼다.”

돈 때문이 아닌 사랑 때문에 남편을 죽인 것이었다는 해석이다. 그는 “처음에는 돈 때문에 죽였다고 생각했다. 지실영도 사람이고, 남편이 500억 자산가인데 돈에 대한 미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감정으로 ‘아-’ 느껴진 순간이 있었다”고 했다.

배우들과의 합은 너무 좋았다. 그는 “빛나는 내 딸을 보는 것 같

았다. 딸이 18살인데 말투나 그런 게 비슷했다. 오나라도 너무 귀여웠다”며 “이윤희도 정말 좋았다.

남문철은 원래 아는 사이인데,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또다시 느꼈다.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라고 치켜세웠다.

남편 김학선도 동종업계에 있는, 배우 부부다. 최근 화제를 모으고 있는 tvN 주말극 ‘비밀의 숲2’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오주선’으로 분하고 있다.

김정영은 “남편이 여자껏 푸근한 연기를 주로 해왔는데 이번에 말랑말랑한 역할이 아니라 너무 좋다.

눈빛이 야비한, 변호사 역인데 너무 잘 어울려서 좋다”며 “인터뷰에서 남편 홍보했다고 할 말이 생겼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남편과는 대학로 연극관에서 만난 ‘동료’다. “2000년 5월에 결혼해 벌써 올해 20주년”이라며 “마치 같이 식당하는 것과 같다. 분야가 같으니 서로 일을 잘 이해하지만 리스크도 다 알아서 어떤 때는 부딪힐 때도 있다.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고 귀띔했다.

1995년 극단 ‘한강’을 통해 데뷔, 어느덧 26년차 배우다. 그는 “대학 전공은 지리학이다. 취미로 연극반에 들어가 잠깐 했는데 너무 못해서 갈게 하진 못했다”며 “졸업할 즈음 갑자기 극단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기를 할 때가 숨이 떨리고 재밌다”고 강조했다.

2002년 김기덕 감독의 영화 ‘나쁜 남자’로 주목을 받기도 했지만 2006년 둘째 아들을 낳은 후 ‘암흑기’를 경험하기도 했다. “아이 둘을 낳고 마지 경력 단절처럼 아무 일도 못 했다. 일이 안 들어왔다”며 “3년 정도는 슬럼프 아닌 슬럼프였다. 30대를 어떻게 보냈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정도”라고 말했다.

남편 친구인 배우 최광일 덕에 일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그는 “유모차를 밀고 연극 공연을 보러 갔었는데, 공연 후 가진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내



내도 배우다. 일감 좀 소개 시켜달라’고 했다”며 “일감이 화끈거렸다. 그런데 그분이 배우 앞에서 그런 말을 실례 타고 해서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며칠 뒤 최광일로부터 연락이 왔고, 연기를 다시 시작했다. 김정영은 “포기할 뻔했는데 만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며 “내겐 은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그는 “작품을 하면서 ‘혹시나

내가 걸려서 유키면 어떻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며 “그나마 십시일반은 90% 이상 세트 촬영이어서 그런 말은 실례 타고 해서 고마웠다”고 회상했다.

며칠 뒤 최광일로부터 연락이 왔고, 연기를 다시 시작했다. 김정영은 “포기할 뻔했는데 만 3년 만에 다시 무대에 섰다”며 “내겐 은인도 같은 사람”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감도 있다. 그는 “작품을 하면서 ‘혹시나

채송아(박은빈 분)의 아빠를 맡아 부부가 한 작품에 출연하게 됐다.

김정영은 “우리 뿐 아니라 드라마 ‘풍문으로 들었소’ 팀에서 6명이 출연한다. 감독이 우리의 연기 색깔을 좋아한 것 같다”며 “이번엔 따뜻한 엄마 역”이라며 많은 기대를 당부했다.

“너무 빨리 질리지 않는, 너무 뻘한 연기를 하지 않는 배우가 되고 싶다.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지만 그래도 저 배우는 연기가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듣고 싶다. 늘 다른, 살아있는 느낌의 배우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다.”

YG 신인 ‘트레저’, 데뷔앨범 초동 16만장 판매

“판매량 수치 계속 늘어날 것”



YG엔터테인먼트 신인그룹 ‘트레저(TREASURE)’가 음반 판매량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일 한터차트에 따르면 지난 13일 발매된 트레저의 데뷔 앨범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THE FIRST STEP : CHAPTER ONE)’의 초동 판매량(음반 발매 후 일주일 간의 누적 음반 판매량)이 16만614장을 기록했다.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은 발매 당일 한터 차트 음반 부문에서 단 하루 만에 실시간 차트

정상에 오르며, 올해 데뷔한 K팝 신인 중 가장 많은 음반 판매량 기록을 세웠다. 이 기세를 몰아 발매 4일 판매량 합계만으로 한터 음반 주간 차트(8월 10~16일) 1위를 제쳤다.

트레저는 이미 전주문량만 20만 장을 넘어서며 올해 K팝 신인 최다 초동 기록 고지를 예약했다.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은 지난달 29일 예약판매가 시작된지 이틀 만에 10만장, 나올 만에 15만장, 12일 20만장을 돌파하며 출발 전부터 연이어 역대급

기록을 써내려갔다.

이는 YG 역대 신인 최대 규모임은 물론 올해 K팝 신인 중 단연 눈에 띄는 숫자다.

YG는 “특히 이번 앨범은 국내 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을 비롯해 미국, 유럽, 동남아시아 등 다각국에서의 구매 요청이 활발했던 만큼, 실제 판매량 수치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트레저는 음반 판매량뿐만 아니라 데뷔 직후 각종 글로벌 차트를 통해 음원도 강세를 보였다. 19개국 아이튠즈 1위를 시작으로 중국 QQ뮤직 5대차트 진입은 물론, 일본 최대 음원사이트 라인뮤직 실시간 송 톱100 차트와 라쿠텐 뮤직 실시간 종합 랭킹, AWA 급상승 차트 1위를 싹쓸이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도 꾸준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트레저는 19일(현지시간) 발표된 빌보드 차트 중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이머징 아티스트’, ‘소셜 50’ 등 각종 차트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월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는 ‘더 퍼스트 스텝 : 챕터 원’ 수록곡 모두 차트인에 성공했다. 타이틀곡 ‘보이(BOY)’가 7위로 첫 진입, 수록곡 ‘들어와(COME TO ME)’는 10위를 기록했다. 데뷔 2주 만에 이런 성과다.

이외에도 미국 빌보드 ‘이머징 아티스트’와 ‘소셜 50’ 차트에서는 각각 4주, 8주 진입에 성공하며 글로벌 음악팬들의 관심을 입증했다.

‘보이’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에서 공개된 지 약 26시간 만에 1000만뷰 돌파, 약 6일 만에 2000만뷰를 넘겼다. 안무 영상도 금세 300만뷰를 기록하는 중이다. 유튜브 채널 구독자 또한 데뷔 이후 급격히 상승해 현재 192만 명을 찍었다.

엄정화 “‘오케이 마담’, 천만같은 백만 관객”...감사인사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 무너진다”



배우 엄정화가 주연작 ‘오케이 마담’의 100만 관객 돌파에 감사함을 전하면서도 최근 재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냈다.

엄정화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케이 마담’ 어제저녁 백만 명이 됐다. 감사하다”며 출연 배우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 속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이신빈, 배정남 등 영화 출연진은 케이크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너무 안타까운 상황에 마음이 무너진다”며 “‘오케이

마담’ 화이팅. 힘내주세요. 모든 것이 오케이될 날을 기도한다”고 적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키는 대목으로 보인다.

이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천만 같은 백만 관객”이라며 감사함을 표했다.

이날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오케이 마담’은 전 날 누적 관객 100만203명을 기록해 개봉 8일 만에 100만 관객을 넘어섰다.

배우 허동원, 코로나19 확진...연극 ‘짬뽕’ 2차 감염

배우 허동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결과를 받았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20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허동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허동원은 출연하는 연극 ‘짬뽕’ 출연진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밀집 접촉자로서 전일 질병관리본부의 연락을 받고 검사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검사 결과 허동원은 연극 출연진에게 감염된 2차 감염으로 확인됐다. 현재 허동원은 질병관리본부로 이송, 추가적인 재검사를 진행 중이다.

허동원은 KBS 2TV 새 수목극 ‘도도솔솔라라솔’에 출연 중이

다. 질병관리본부 연락을 받은 직후 드라마 측에도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검사 진행 상황을 알렸으며 이날 양성 판정 결과 또한 즉시 공유했다.

함께 스케줄을 진행한 허동원의 매니저는 음성 판정을 안내받았다. 소속사 관계자는 “허동원은 계속해서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강성훈, 악플러 “선처 없이 법적 대응”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이 악플러의 사과에도 강경대응하기로 했다.

강성훈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정술은 20일 “강성훈에 대한 악성 게시물의 작성자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12일 자신이 여고생이라고 밝힌 A씨는 강성훈과 시비

가 붙었는데 그가 자신을 세계 밀쳤고, 욕을 했다고 온라인 게시글을 통해 주장했다.

하지만 강성훈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이라며 반발했다.

이후 영등포경찰서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전날 한 방송을 통해 자

신의 글을 거짓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강성훈 측은 “일부 악플러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나 현재로서는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지속해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당사자와 동일한 사람 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이 악의적으로 꾸준히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어 온 만큼 선처 없이 법적 대응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